

기술개발로 자동화를 추구하는 보암산업주식회사를 찾아서...

취재·정리/대한전기기사협회 홍보과

연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약관의 나이에 젊음 하나를 무기로 불모지나 다름없던 소재산업에 뛰어들어 소재, 부품, 자동화설비, 자동조명기기 등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굳힌 벤처 비즈니스맨인 노시청 사장.

자급난, 인력난, 첨단기술 부족, 경쟁력 약화 등의 복합요인이 겹쳐 경제난국이라 표현하는 요즘 현실에서 바람직한 기업상은 어떤형일까라는 물음에 하나의 정형화된 답을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 업계에서 제시되는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기업이라면 한국 중소기업의 모범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자본주의에 규모를 눈으로 보여주는 무역센터 37층에 자리잡은 보암산업(주) (대표: 노시청)가 이런 범주에 속한다.

경기도 양주에 자리잡은 보암산업(주)는 현지 공장에서의 웨라이트 코어 등 소재개발부터 CNC 컨트롤러 등 공장자동화 설비기기, 그리고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조명기기 제조공장에서의 전자식 안정기, 삼파장 형광램프, 메코램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보암산업(주)는 1975년에 보암전기·전자재료 연구소란 다소 특이한 이름으로 조촐하게 출발. 자본금 7억 5천만원에 연간매출 300억이 되는 중견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R&D를 빼고는 보암산업(주)의 현주소를 읽기란 어려운 것 같다.

“보암식의 R&D”라 지칭할 만큼 철저하게 자체

연구개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소재개발은 물론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를 이룩하고 그 개발실적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극히 최근에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가 업계의 구조조정 대안으로 신속히 보급되고 있는 것에 비해 보암산업(주)는 8년전에 순전히 자체기술로 라인자동화와 사무자동화를 이룩하여 선진국들과 경쟁하여 왔다.

“경쟁자의 역할은 기업관리방법, 제조, 조직 등을 디자인하는 것이며, 이것을 프로그램화하고 사용방법을 교육하면 기업은 운영될 수 있습니다.” 라는 노시청 사장의 독특한 기업운영관에서 보듯 보암산업(주)는 최고경영자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획하며, 이것을 데이터화하여 자동화를 이룩,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런 FA, OA를 통해 생산라인의 인력을 1/10로 줄여 유희인력을 다른 곳에서 활용하여 현재의 인력난에 어려움 없이 대처하고 있다. 보암산업(주)의 주력상품은 초소형 절전형 형광램프, 메코램프, 차밍라이트, 가든라이트와 VTR, 컴퓨터와 모든 기준제품에 쓰이는 FER-RITE CORE, 고주파 트랜스, 고주파 노이즈 필터 등 고무기까지 제품들이다.

13mm형 절전형 형광램프는 보암산업(주)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조명기기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에 특허를 등록하여 낙후된 한국조명기기 산업의 오명을 벗게 하였을 정도이다.



◀ 태양빛 축전/야간조명/배선불요
전력비 제로인 가든 라이트 (특허출원중)



◀ 보암산업(주)가 개발한
유도형 전동기의 속도 조절기

또한, 선진 조명기기 산업국인 독일, 일본이 국내시장을 휩쓸고 있는 삼파장 형광램프를 개발, 보급단가를 낮추었으며 정원조명용 가든라이트는 외국의 제품이 하루만 날씨가 흐려도 조명을 할 수 없는데 비해 3일 동안 날씨가 흐려도 조명이 가능한 우수한 제품을 개발, 거의 전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조명기기 분야에서만 지난 한해 50만달러를 수출했다.

고주파 트랜스, 고주파 노이즈 필터는 절전형 전자식 안정기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국내 대기업인 삼성, 금성, 대우, 현대 등에 필터부분은 90%, 트랜스부분은 20% 정도나 납품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보암산업(주)의 고주파 코일부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인정하고 있다.

보암산업(주)의 상품이 높은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재기술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업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소재산업은 보잘것 없는 상태로 주요전자부품이나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던 때였다.

1978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FERRITE CORE가 컴퓨터, VTR, 가전제품 등에 중요한 절전형 소재이면서 전자산업의 가장 취약한 투자제 부분의 소재로 이를 개발하기 위해 보암의 임직원들은 손이 부르터서 장갑을 끼고 다녀야 할 정도였으며, 국내 기업체들의 두려운 국산품기피 현상을 뚫는데는 1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노시청 사장은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핑방한 위기로 진단하면서도 결코 쉽게 피하려 하지 않고 “기술수준에 바탕을 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93년도에는 “낭비감소작전 성공의 해”라는 슬로건으로 어떤 어려운 국내외 경제의 변화에도 능동적인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노시청 사장이하 보암산업(주) 전 가족은 寶岩이라는 회사명에 맞게 우리나라 전기·전자 산업에 귀중한 주춧돌이 되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있다.

◆ 연 력

- 1975년 : 창립 (보암전기전자연구소로 시작)
- 1978년 : Ni-Zn 웨라이트 코어 개발 성공
- 1979년 : 고주파 인덕터 생산 개시
- 1980년 : 자동화사업부 개시
- 1981년 : 업무전산화 개시
- 1982년 : 보암산업주식회사로 현물투자 법인전환
- 1983년 : 자동선발 컨트롤러 국산화 개발
- 1984년 : AXIAL 인덕터 국산화 개발
- 1985년 : 한국전자전 국무총리상 수상
- 1986년 : 한국기계전 상공부장관상 수상
- 1987년 : Mn-Zn 웨라이트 코어 개발성공
- 1988년 : 유망중소기업선정
- 1988년 : 일본 사이카이 공업(주)와 기술 및 자본 합작
- 1989년 : 전자식 안정기 국산화 개발 성공
- 1990년 : 우수기계탑 수상
- 1990년 : EMI관련 상품 국산화 개발성공
- 1990년 : 콤팩트 형광전구 개발성공
- 1991년 : 태양축전식 조명기구 개발성공
- 1991년 : 전자과 흡수체 국책과제 개발성공
- 1992년 : 웨라이트 코어 생산전문화 업체로 지정
- 1992년 : 전자과 흡수체 생산전문화 업체로 지정